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1주일
제32권 14호(나해) 2012.2.26

[묵상]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메시아로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전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십니다.
40일 동안의 이 시간은
어떤 메시아가 될지 결정되는 시간이며
그 모습에 따라 성패여부도 결정될 겁니다.

메시아를 원치 않는 사탄은
인간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인간의 배를 불러 만족케 하라,
재물을 보장해주는 메시아를 원한다.
인간은 신기한 현상들에 열광한다,
욕구를 채워주는 기적들로 그들을 사로잡아라.
인간은 권세와 부귀영화를 최고로 여긴다,
최고의 권력으로 그들을 다스려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되고 싶은
예수님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오로지 하느님 말씀에 힘입어
채움보다는 나눔, 다스림보다는 섬김
세상이 아닌 하느님의 가치를 선택하십니다.

참 메시아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과 달리
갖은 유혹에 여전히 흔들리는 저희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 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저녁미사(사순시기)	오후 7: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차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피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차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권순봉 요안나, 박선옥 안나, 이향복
특전미사	(생)조 예레미아
주 일 낮 미사	(연)송기인 요셉, 고준희 제임스, 이상일 요셉, 박영춘 안토니오, 유점이 베로니카, 신태동 요아킴, 양건배 비오 & 황옥분, 전순정, 박문수, 문부전, 유명옥 아브라함
	(생)오신제 메히틸다, 우영희 엘리사벳,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전안나 & 전복래 테레사 가정, 김알렉스, 안나희 회원들, 송호창 요셉 & 송호민, 박태완 가브리엘 & 박금명 올리아나 가정, 최영신 프란치스코 부제 & 최숙 클라라 가정, 박상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9,8-15

화답송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제 2독서 베드로 1서(1 Peter) 3,18-22

복 음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환호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 음 마르코(Mark) 1,12-15

영성제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51	149	156
봉헌	259	269	264
성체	283	281	106
파견	153	153	154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하느님 아버지, 말씀의 원천이며 기원

죽음의 어둠 속에서 마지막 숨을 향해 순명으로 나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순간에, 그분께 당신 자신을 내맡기셨습니
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루카 23,46)
예수님의 이러한 체험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다음
그분의 침묵도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의 상황을 보여 줍니다.
그것은 많은 성인들과 신비가들이 겪었던 체험이고, 오늘도
많은 믿는 이들의 여정 속에 들어 있는 체험입니다. 하느님의
침묵은 그 이전의 그분 말씀들의 연장과도 같습니다. 이 어두
운 순간들에 그분께서는 당신 침묵의 신비로써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계시의 역동 안에서 침묵은 하느님 말씀
의 중요한 한 가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말씀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느님과 계약을 맺도록 부름 받아

22). 말씀이 여러 형태를 띠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하
느님께서 얼마나 많은 방법들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을
만나시며 대화를 통하여 당신을 알게 하시는지를 관조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이 단언한 바와 같이 “대
화라는 것을 계시에 적용시킬 때에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말씀의 우선성을 내포합니다.” 계약의 신비는 당신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느님과 응답하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이것이 동등한 두 계약 당사자 사이의 만남
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계약, 새 계약
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등한 두 상대방 사이의 합의 행위가 아
니고 순전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당신 사랑의 이 선물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모든 거리를 극복
하여 우리를 진정으로 당신의 “파트너” 가 되게 하시며, 그리
스도와 교회 사이의 혼인적 사랑의 신비를 실현하십니다. 이
러한 전망 안에서 모든 인간은 말씀의 수신자로서, 자유로운
응답으로 그 사랑의 대화로 들어가도록 요청받고 부름 받고
있는 존재로서 나타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각자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이 대화에 자
신을 열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자녀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관
계적인 것임을 보여 줍니다. <◆계속>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서로 격려합시다.(히브 10,24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 시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인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서로 자극을 주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히브 10,24)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삶의 세 측면인 이웃에 대한 관심, 상호 관계, 개인의 성화에 대하여 언제나 소중하고 간절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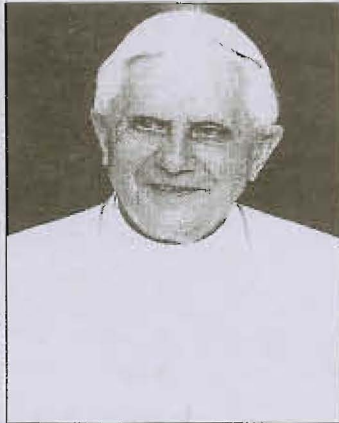
오늘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지키는 사람”(창세 4,9)이 되라고, 이웃의 행복, 그 온전한 행복에 대한 관심과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인류 안에서, 많은 경우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끝없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나(alter ego)를 다른 사람들 안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을 키운다면, 우리 마음 안에서 연대와 정의, 자비와 연민도 자연스럽게 솟아날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형제애와 친교를 이루고 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들의 고통에 둔감하게 되는 일종의 ‘정신적인 마비’로 우리 마음이 완고해질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서로 영적인 행복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거의 잊혀진 것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한 측면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곧 영원한 구원의 관점에서 형제를 타이르는 교정입



니다. 우리는 죄악 앞에서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권고는 결코 비난이나 비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것은 사랑과 자비에서 나오고 다른 이의 선의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 우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성찬례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한몸의 지체로 서로를 결합시키는 친교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는 다른 이가 나의 일부이고 그의 삶과 구원이 나 자신의

삶과 구원에 관련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체는 그 지체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참회하고 용서를 빌지만, 한결같이 그 안에 있는 덕행과 사랑의 모범을 보고 기뻐합니다. 기도와 단식과 더불어 사순 시기의 전형적인 실천인 자선으로 드러나는, 우리 형제자매를 위한 사랑의 실천은 이러한 일체감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서로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점점 더 실질적인 사랑을 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됩니다. 이송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선행을 식별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숭고한 보통의 그리스도인의 삶”(「천년기」, 31항)을 목표로 삼으라는, 오늘날에도 시의적절한 초대 를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실성을 새롭게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사랑과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야 하는 절실한 요구를 느껴야 합니다.(히브 6,10 참조) 이 사순 시기가 복되고 은혜로운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이번 주 전례 봉사가

다음 주 전례 봉사가

이번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신덕레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김숙희 유소사 세실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김교복 래오	모은기 다 두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전하현 마리아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오후 7시30분으로 임시 변경되며, 미사후 곧이어서 '십자가의 길' 기도가 구역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순 제1주일 금요일(3월2일) : 토런스 서구역
- 사순 제2주일 금요일(3월9일) : 토런스 남구역
- 사순 제3주일 금요일(3월16일) :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4주일 금요일(3월23일) :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5주일 금요일(3월30일) : P.V. 구역

-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준비되어있습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공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5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부활 합동 판공성사 : 3월27일(화)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사순시기 중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어르신들께선 미사전후 고해성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동보속 : ㉠요한묵시록 통독 ㉡선행1회 ㉢주모경기도 중 두가지 선택

- ◆ 본당 M.E. 셰어링(Sharing)
- 일시 : 오늘 주일(26일) 오후 6시, 강당
- 문의 :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율리아 대표부부 ☎(310)780-9055

- ◆ 소년복사단 월례모임
- 일시 : 3월3일(토) 오후 4시~6시
- 장소 : 성당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복사단장 ☎(424)903-6637

- ◆ 백삼위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 모집
- 성가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숭고한 기도입니다. 하느님께 올리는 합창의 기도에 나의 목소리도 합쳐서 올립니다.
- 대상 : 부활절을 앞두고 새 단원을 초대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남녀교우
- 문의 : 지휘자 민원희 안나 ☎(310)634-9631

-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서 배부 중
- 수혜대상 : 하이스쿨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신청서 : 사무실에 비치
- 서류접수 : 4월1일~5월15일
- 장학금 지급 : 매년 8~10명 선정, 첫지급 8월1일 이후
- 문의 : 본당 신부님

- ◆ 백삼위 탁구 동호회 발족
- 회원모집 : 본당 교우 남녀노소
- 연습 및 강습 : 매주 토/일(시간 추후 결정)
- 장소 : 강당, 유아실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 사순절 특강
- 일시 : 3월14일(수), 15일(목) 저녁미사 후
- 장소 : 성전
- 강사 : 이연학 요나 신부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소속)

- ◆ 미주가톨릭 방송(KCBC)시간 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9시 AM1650 라디오서울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8시 AM1230 우리방송
- 방송봉사자 모집 : 관심있는 분들의 연락바랍니다.
- 문의 : 경 헨리 ☎(213)500-3852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2월26일(주일) : 토런스 서2반(해물카레 \$3)
주일학교 3학년(소시지야채볶음)
- 3월4일(주일) : 소공동체(떡, 김밥 \$4)
주일학교 2학년(소고기볶음밥)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국세찬 금영도 김관기 김윤진 김정순 김정엽 김정웅 남성철 박상준 박완철 박정희 신순철 안민수 안재만 안태갑 오석만 오세원 유희연 육근주 윤석구 이상철 이용식 이우성 이형삼 임보필 장정진 정훈모 조혜정 최미열 최수복 한경희 한창주 홍광선 홍석인 황인중
합계 : \$4,540	
미사헌금 : \$2,755	

성전헌금	강미순 국세찬 금영도 김관기 김윤진 김정순 김정엽 남성철 박완철 박정희 신순철 안민수 안재만 안태갑 오석만 오세원 이상철 이용식 이우성 이일길 이형삼 장정진 정훈모 조혜정 최미열 최수복 한창주 홍광선 홍석인 황인중
합계 : \$2,860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 (야외14처) 스케줄

오늘주일(26일)부터 오전 10시30분 주일학교 교리공부 시간 중에 '십자가의길' 기도를 성모동산 야외14처에서 두 학년씩 진행합니다.

*26일 : 11,12학년 * 3월4일 : 9,10학년 *11일 : 7,8학년
*18일 : 5,6학년 *25일 : 3,4학년 *4월1일 : 유치부,1,2학년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시작

- 기간 : 2월1일(수)~3월31일(토)까지
- 제목 : 요한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8일)

중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9일(금)~3월10일(토), 장소 : 백삼위 분당
- 준비물 : 성경, 묵주, 미사헌금, 슬리핑백, 재킷, 주일학교 티셔츠, 세면도구
-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30일(금)~4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피정의 집(37855 Highway 79 S. Temecula)
- 대상 : 9~12학년 * 참가비 : \$60(3월1일 이후 신청은 \$80)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주일학교티셔츠, 세면도구, 미사헌금 * 문의 : 황 교무주임 ☎(424)903-6637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참가비 : \$190(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 2월28일까지 선착순 30명(Deposit \$20)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한국학교 2학기 등록 접수중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면제
- 대상 : K~12, SAT II
- 문의 : 김본경 율리아 교장 ☎(310)713-2669

남가주 소식

故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즈' 감독 구수환 KBS PD 강연

- 일시 : 2월28일(화) 오후 7시30분
- 장소 : LA성바실 한인천주교회(3611 Wilshire Bl.)
- 주최 : 미주아프리카 희망후원회(이사장 김효근 신부)
- 문의 : 이안젤라 ☎(310)617-3110

성골롬반 청소년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4월21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로열비스타 골프코스(20055 E. Colima Rd. Walnut)
- 참가비 : \$100 * 문의 : 최용훈 신부 ☎(323)388-7737

소공동체 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원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강순복 요세피나 850-6388 2/4(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2/11(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대우 비오 378-8763 2/18(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619-7763 2/12(주일) 사하라 온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진영선 크리스티나 781-0856 2/14(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이명자 마가렛 320-0855 2/17(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테레사 634-6923 2/10(금)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2/18(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2/18(토) 오후 6시30분 성당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최현찬 안드레아 938-0848 2/1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최진수 애우세비오 377-0345 2/10(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이건영 프란치스코 377-5632 2/10(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2/17(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2/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주님, 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소서.

인디언의 기도는 하느님이 틀림없이 들어준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가령 비가 오지 않을 때 인디언이 기우제(祈雨祭)를 올리면 어김없이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 어떤 기도도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는 백발백중입니다. 아니 제 기도의 적중률은 인디언의 기도를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했던 것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보너스로 나머지도 “결들이 받게”(마태 6,33) 해주셨으므로 백 퍼센트를 훨씬 초과 달성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은 악하고 선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듯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통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핫라인입니다. 이 긴급 직통전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도, 기도를 청할 수도,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라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말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살려 달라’고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SOS의 모스부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니체의 말처럼 하느님은 죽은 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마태 18,19)

문제는 기도를 백 퍼센트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처처럼 눈이 어두운 소경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나병환자 열 사람을 만났습니다.(루카 17,11-19 참조) 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였고, 주님은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십니다. 열 명의 환자는 사제를 향해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

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아홉 사람은 어디 갔느냐?’ 하고 물으시며 돌아온 환자에게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표한 환자이지 고마움을 모르는 아홉 사람 중 하나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야말로 주님께 돌아와 찬양한 환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헤일 수 없이 수많은 기도를 올리면서도 아홉 환자처럼 조금 전까지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울며 기도했던 순간마저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시치미를 떼고 감쪽같이 기적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완전범죄(?)를 저지르시기에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하게 주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못 느낀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평화는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은 느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금세 잊어버린다. 마치 심한 갈증으로 혀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는 남은 물을 버리는 것처럼.”

저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애원하면서도 막상 제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이루어진 기도를 금방 잊어버리고 남은 물을 버리는, 엎드려 찬양할 줄 모르는 정신적 나환자입니다. 아아, 참으로 불쌍한 것은 오히려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느님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셨음에도 잠깐 사이에 세 번이나 배신하는 저의 악하다 악한 베드로적 믿음입니다.

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발을 씻겨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하여 주소서.”(루카 22,32)

(성경 인용은 공동번역입니다.)

◆최인호 베드로/작가(서울 대교구 주교 ‘말씀의 이삭’)

사순 시기

사순은 본래 ‘40일’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십계를 받기 전 40일간 재를 지켰고, 엘리야 예언자도 호렙산에 갈 때 40일을 걸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자들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